

■ 2026 새해설계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돈 버는 농업·안정적 영농인력 지원체계 구축”

현장 중심 농정정책…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구현

공공형 인력 대규모 지원…보급형 스마트팜 확산도

“돈 버는 농업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통해 광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13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인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기후 위기와 인력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업과 농촌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현장 중심 농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그는 ‘원팀 광주본부’의 현장 대응력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법시민적인 아점밥 먹기 운동은

쌀값 회복의 마중물이 됐고, 도시 농협과 농촌 농업이 협력한 도농 공동사업은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임직원 1600여명이 현장에 나서고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농업인의 재기를 도운 것은 농협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향 광주에서 농협 광주본부장을 맡게 된 소회도 함께 전했다.

그는 “29년간 농협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고향 광주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취임의 설렘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답은 책상이 아니라 논과 밭에 있다”며 “농업인 결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농협



광주본부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올해 광주본부의 핵심 과제로 농업 소득 3000만원 시대를 실질적으로 여는 데 방점

을 찍었다.

그는 “농업인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공허하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NH싱싱몰과 로컬푸드 매장을 연계해 유통 단계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경영비 부담을 채감할 수 있을 만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일손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사람 걱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촌·동곡·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연간 누적 3만명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농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이 수억

원의 시설 투자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시켜 비용 부담은 낮추고, 디지털 농업 진입 장벽은 낮추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흐르는 구조를 만들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고령 농업인 돌봄 강화를 위해 농촌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철호 본부장은 “농자전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의 뿌리”라며 “뿌리가 살아야 광주가 살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올 한 해 동심협력과 이창득심의 자세로 농업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광주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농업인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산업, 60초 영상에 담았다

중기부 영상 콘텐츠 공모전…최우수상·우수상 수상

광주와 전남의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이 60초 영상을 통해 전국에 공개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주력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솜품 콘텐츠를 통해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지역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혁신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49점이 접수돼 약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우수상을 배출하며 지역 산업의 존재감을 전국에 알렸다.

먼저, 광주는 ‘세계를 광주로 물들(武珍)이다’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의 옛 지명 ‘무진(물들)’의 역사적 상징성과 현대의 AI 기술을 연결하여, 산업 발전사 속에서 광주가 AI를 통해 세상을 물들여가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전남 역시 ‘자연에서 시작된 기술, 전남

자연유래 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내용에는 전남의 천연자원이 첨단 바이오 기술과 만나 ‘자연유래 헬스케어’ 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비전이 담겼다.

또, 광주의 ‘광주, 기술로 일상을 움직이다’와 전남의 ‘하늘을 여는 가장 안전한 기술, UAM 통합 관제’ 두 작품이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기부는 최우수상 수상작 14편을 이날부터 약 한 달간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에게 상금으로 각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수여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홍플러스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 자은도 대파'를 14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할인가인 2990원에 선보인다.

홍플러스, 신안 자은도 대파 기획전

홍플러스가 강한 단맛과 진한 향이 일품인 ‘신안 자은도 대파’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13일 홍플러스에 따르면 14일까지 ‘신안 자은도 대파’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할인가인 2990원에 판매한다.

신안 지역은 겨울철 대파 주산지다. 특히 자은도는 풍부한 일조량, 미세달이 합유된 해풍,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갖춘 최적의 재배지로 손꼽힌다.

겨울철 매서운 해풍을 맞고 자란 자은도 대파는 얼지 않기 위해 자연적으로 당

분을 축적해 단맛이 강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홍플러스는 자은도 내 10여개 농가와 협력해 포전거래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산지에서 패키징 하우스까지 직송 체계를 구축해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시세 변동성을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롯데마트, 스마트팜 상품 확대 깻잎·오이 등 특가 판매 진행

롯데마트가 고물가 기조 속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품질의 채소를 제공하고자 15~21일까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내일농장 깻잎(40g)’과 ‘스마트팜 오이(개)’를 각각 1990원, 1190원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팜 오이는 날개 상품 외에도 ‘스마트팜 오이(5입/봉)’ 구성으로 6990원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겨울철 채소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서 저가에 취약해 쉽게 물러지는 잎 채소류와 열매 채소류를 중심으로 시세가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향후 깻잎과 오이를 비롯해 상추, 파프리카 등 외부 날씨에 민감한 채소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채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스마트팜 채소 운영 물량을 2025년 대비 약 20%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